

9일 Market Index			
코스피	5251.87	코스닥	1102.28
	(-333.00)		(-52.39)
금리	3.420	환율	1491.45
	(+0.193)		(+15.05)

# metro® 경제



## 중동전쟁 후폭풍... 실물경제 확산 차단 총력

**美-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  
환율 17년만에 1500원 선 눈앞  
국제유가 결국 100달러대 진입  
코스피 5.96% 하락한 5251.87  
장중 8% 하락 '서킷브레이커'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5584.87)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마감했다. /뉴시스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대로 올라섰다.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7년 만의 최고치를 찍는 등 국내 주요 지표가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졌다. 9일 기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몰고 온 후폭풍이다.

이번 사태에서 현재까지 휴전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애초 단기간 승부를 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언은 무색해졌다. 이란은 이웃 국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 파괴를 예고하는 등 항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2026년 중동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즉각 반영한 국내 금융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악세를 면치 못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6% 넘게 폭락하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생했다. 사이

드카 발동 당시(오전 9시6분) 코스피 200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6.49% 내린 773.90포인트를 가리켰다.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이어 오전 10시 31분에는 지수가 전장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돼 코스피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17년 만에 처음 1500원 선에 다가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6원 오른 1493원에 거래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22분 기준 1498.6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3월12일(장중 150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9.1원 상승한 1495.5원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는 결국 100달러대에 진입했다. 이날 오후 3시50분(한국시간) 기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오는 5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16.39% 급등한 배럴당 107.88달러에 거래됐다. 미서부텍사스산원유(4월 인도분) 선물 가격 역시 15.27% 뛰며 104.78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65원에 달했다. 이는 근 4년 사이 가장 비싼 수준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삼성SDI 피지컬 AI에 적용할 전고체 배터리 공개

삼성SDI가 피지컬 인공지능(AI)용으로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다.

삼성SDI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간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로봇은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적인 만큼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사용 시간, 순간 전력 피크 대응 능력 등이 요구된다. 삼성SDI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피지컬 AI용으로 높은 안전성과 출력 성능을 갖춘 전고체 배터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경량화를 위한 파우치형 폼팩터도 개발하고 있다.

### 인터배터리서 샘플 첫 공개 안전성·출력 성능 높이고 경량화 위한 파우치형 개발

그동안 전기자동차용 각종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 온 삼성SDI는 폼팩터 다변화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항공 시스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용 고출력 배터리도 전시한다. 전시 부스 중앙에는 실제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내부를 구현한 공간을 마련하고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배터리 'U8A1'을 탑재한 UPS 모형을 배치했다.

U8A1은 각종 배터리 폼팩터에 리튬망간산화물(LMO) 소재를 적용해 고출력 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통해 기존 대비 공간 효율을 약 33% 높여 적은 수의 배터리로도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일반적인 UPS용 배터리와는 달리 AI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 품질을 안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UPS 고객들의 수요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AI 시대의 모든 가능성을 삼성SDI의 배터리 기술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 배터리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



metro

## “중동發 위기, 최악의 상황 염두... 선제 대응책 마련”

### 李 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경유 않는 공급선 발굴 주유소 매점매석 등 철저히 단속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등하고 있는 국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급등하는 유가를 잡재우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일영 의원 특사 파견 /사진 뉴시스
- ▲국방부, 주한미군 차출실에 “미군과 상시적 상호소통”

- ▲시민단체, 방송인 김어준 경찰 고발...“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 ▲김정은, 리설주·김주애와 국제부녀절 공연 관람

- ▲美 디플로맷 “李,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 60% 지지율 ‘찬사’
- ▲박형준, 부산시장 3선 도전...“보수는 위기, 독재 막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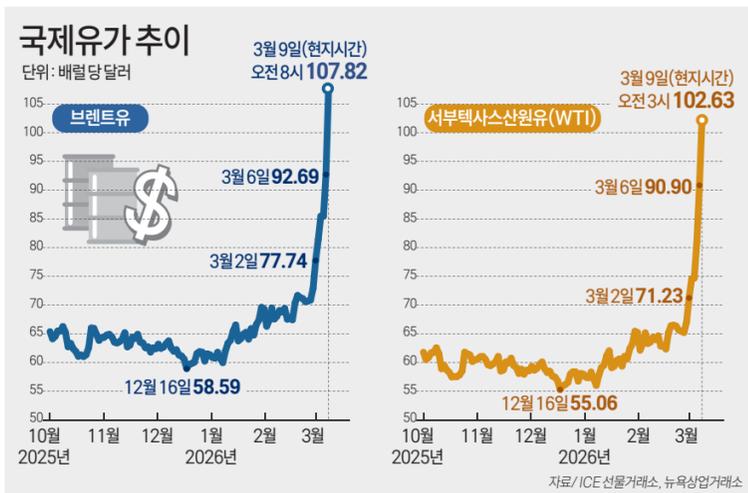
#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석화·항공 '직격' 정유·방산 '반등'

석화업계, '공급 불가항력' 우려  
항공업계, 우회 운항 등 비용 부담  
정유업계, 재고 평가이익 개선 기대  
방산업계, 중동 등 수주 증가 전망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유가에 극히 민감한 석유화학과 항공업계는 연쇄 타격을 입게 됐고,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부담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유와 방산업계는 실적반등의 기회를 맞을 수 있어 일부 업종별 온도차도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위기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석유화학과 항공 업종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유가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 '공급 불가항력(포스마주르)'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



기 어려울 때 면책을 위한 조치이다. 실제 여천NCC는 지난 4일 주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일정의 지연 및 조정 가능성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국내 업체들은 납사 상당량을 중동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하면 수급 불안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항공 업계도 미국·이란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동 노선이 여객·화물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럽 등 일부 노선

은 우회 운항이 불가피해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권 가격 인상은 여객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 항공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된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날 싱가포르 항공유는 최근 배럴당 220달러까지 상승했다. 불과 2월 말 93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단기간 두 배 이상 급상승했다.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업계도 중동전쟁 장기화 전망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중동으로 가는 TV와 가전, 스마트폰

등의 물량은 고가 제품의 비중이 크지만 글로벌 경쟁사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원료는 헬륨과 브롬 같은 가스로 분석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원판) 냉각에 필수인 헬륨의 국내 수입량중 64.7% (2025년 기준)는 이란 주변국인 카타르 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국제 유가 향방을 살피고 있다. 통상 유가가 크게 오르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주요국 판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아시아 완성차 업체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동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토요타와 현대자동차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란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지난해 전체 중동 시장 판매량 300만대 중 38%가 이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유와 방산업계는 수익성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유업계는 유가 상승 시 보유한 원유 재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될 때마다 정제마진과 재고 평가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방산업계는 수익성 제고의 기회를 맞았다. 중동 전역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발주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거리 요격체 등 수주 경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으로 유지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4% 포인트(p) 증가시킬 것"이라며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가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p 올라가고 150달러면 2.9%p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 현금흐름 경색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한 달새 20% 급등

재고부족·공급불안 등 오름폭 영향  
"세계 등 정책수단 통해 부담 완화해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디젤 재고 부족과 중동 공급 불안, 생산 확대의 제약이 겹치면서 경유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5.32원으로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1692.58원)보다 약 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리터당 1917.73원으로 1597.24원에서 약 20% 올라 휘발유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로이터 등 외신은 경유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이는 배경으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꼽는다. 전 세계적으로 경유와 항공유 등 중간유분은 다른 석유제품보다 공급이 타이트한 시장으로, 유럽의 지속

적인 수입 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국 에너지 시장 데이터·분석 업체 보르텍사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지난해 디젤·가스오일을 5000만t 이상, 항공유를 2500만t 이상 수입했다. 여기에 겨울철 난방과 발전 수요까지 늘면서 수급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유 공정의 구조적 특성은 공급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 원유를 정제하면 제품은 일정 비율로 생산되는데, 원유 1배럴에서 휘발유는 약 20~30%, 경유·항공유 등 중간유분은 약 30~40%가 나온다. 특정 제품만 선택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중동 전쟁은 원래 타이트하던 경유 시장을 더욱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 금융회사 스톤엑스는 중동산 원유가 상대적으로 디젤 등 증류유 함량이 높은 등급이 많아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디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구조도 가격 상승을 키우

는 요인이다. 경유는 화물 운송, 선박, 건설 등 산업 전반의 핵심 연료여서 수요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도 디젤 가격은 휘발유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집계 기준 미국 내 디젤과 휘발유 가격 격차는 2010~2021년 평균 갭런당 0.25달러에서 2022년 0.84달러로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1.46달러까지 벌어졌다.

김병준 한국폴리텍대학교 석유화학 공정과학과장은 "국내에서는 통상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높지만 전쟁 등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면 경유 가격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며 "석유는 연속 공정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공급에 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계 등 정책 수단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 "기름값 아껴야"... 카드 할인혜택 관심집중

리터당 할인보다 정액·정률 혜택 유리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기름값 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리터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정액 또는 정률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1900원을 돌파했다. 전날보다 5.33원 상승했다. 1702원이었던 지난 2일과 비교하면 고작 일주일 사이 2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폭등했다.

휘발유값이 급등하자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출시된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업계 최초로 주유 시 인근 지역 내 가장 저렴한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든 상관없이 인근 지역 내 최저 유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반경 5km 내 국내 4대 정유사(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및 알뜰주유소의 각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동일 유종 간 가격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

신한카드의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도 주목할 만 하다.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S-OIL) 등 4대 정유사에서 주유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정유사를 찾아가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한카드 'Deep Oil' 카드도 있다. 4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 디스카운트 플랜 플러스

대 정유사 중 한 곳을 택하면 10%의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랜 시간 정유 혜택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카드도 있다. '삼성 ID ENERGY'는 지난 2021년 출시된 카드로, 주유 건별 당 1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 할인 횟수는 전월 이용 금액대별로 상이하다. 월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150만원 이상일 경우 3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유사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최근처럼 기름값이 상승할 때는 리터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비율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유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승훈카드고릴라대표는 "주유 혜택 카드를 고를 때는 할인·적립 한도 외에도 자주 가는 주유소 브랜드가 있는지, 전월 실적에 주유비 결제 금액도 포함되는지, 차량 관련 혜택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좋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여서 리터당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보다는 정률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고르면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더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 김정관 "물가안정 역행하는 행위 엄정 대처"

(산업통상부 장관)

정유·유통업계 가격안정 역할 당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에서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던 국내 석유 가격이 최근 며칠 사이 급등했다"며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땀 빨리, 내릴 땀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또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알뜰주유소가 전국 평균가격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유통업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급락장에 널뛰는 환율까지... 투자자들, 매수냐 관망이냐

유가·환율 급등에 투심 냉각  
코스피 장중 5100선까지 후퇴  
外人·기관 매도에 변동성 확대  
매수 기회론·변동성 경계론 엇갈려  
전쟁 향방이 장세 가를 변수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하락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

개인투자자 이모(30)씨는 2021년 9만 원대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뒤 4년 넘게 수익을 못 내다가 지난 1월 '15만 전자'가 되자마자 팔았다.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치솟자 결국 지난 2월 20만 원대에 다시 샀다. 이씨는 "짧게 조금만 벌고 나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 졸일 줄 몰랐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던 증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9일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중동 사태 악화로 지난 4일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333포인트(-5.96%) 급락한 5251.87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4조 6000억 원여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 기관이 각각 3조 2000억 원, 1조 5000억 원 '팔자'에 지수는 무너져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52.39포인트(-4.54%) 하락한 1102.28로 마쳤다. 주말 후 열린 아시아 금융시장도 바짝 얼어붙었다. 낮케이 225 평균주가는 5.2% 급락했다. 대만 가

권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홍콩항셱지수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오후 3시30분 종가 1495.5원)를 위협했다.

### ◆유가·환율·사이드카까지... 불안 커진 시장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19.50포인트(5.72%) 내린 5265.37에 출발한 뒤 한때 5142.69까지 밀렸다. 코스피 200 선물이 급락하면서 오전 9시 6분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매도 사이드카다. 코스닥 역시 6%

안팎으로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90원대로 치솟았다. 에너지 수입 부담과 외국인 이탈 우려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변동성 확대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변동성완화 장치(VI) 발동 건수는 총 3314건으로 하

루 평균 828.5건에 달했다. 1월 하루 평균 134.3건, 2월 183.4건과 비교하면 4~6배 수준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주가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산·정유주 등 전쟁 및 유가 상승 수혜주 중심으로 자금 로테이션(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발 지정학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최대 변수로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 ◆저가매수 vs 빛투 부담... 엇갈린 전망

급락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폭락은 팔 자리가 아닌 사야 할 자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고 일간 나뭇잎이 과도한 데다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부터 반도체, 조선, 방산, 금융 등 주도주 중심의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양형모 DS투자증권 연구원도 "확률적으로 증시 추가 하락 시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포는 매수 기회"라고 밝

혔다. 이어 "이미 지난 3월 4일 장중 -12.65%(5059)를 경험했다. 이 레벨이 1차 매수 구간이며, 4816 도달 시 2차 적 극적 비중 확대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빛투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 용자 잔고는 33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2조 148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었다.

시장에서는 결국 전쟁의 향방이 증시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의 본질은 유가에서 출발하는데 환율이나 외국인 매도 움직임 등 아직 매수를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해의 투자은행(IB)들은 이번 급락을 상승 사이클 속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의 2026년 이익 성장률 전망을 기존 120%에서 130%로 상향하고 코스피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높였다. 보고서는 "이번 하락은 조정에 불과하며 일정 기간 박스권을 거친 뒤 신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허정윤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고유가 덮친 채권시장... 커지는 고금리 충격 우려

유가 급등에 국고채 금리 가파른 상승  
고유가 장기화 우려에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금리 상승)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유가·고물가에 이어 고금리에 대한 충격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19.3bp(1bp=0.01%포인트) 오른 3.420%를 기록했다. 연초 2.935%로 3%대 이하였던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지난달 9일에도 3.267%로 올라왔다 같은 달 말 3.041%까지 다시 떨어졌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상승압력이 다시 자극된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 3일 2~10년 구간을 중심으로 15bp 안팎 급등했다. 만기별로 국고채 2년물은 15.5bp 상승한 2.973%, 3년물은 13.9bp 오른 3.180%, 5년물은 14.6bp 된 3.424%, 10년물은 14.8bp 오른 3.594% 등을 기록했다. 전 구간 상승폭이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 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2023년 10월 4일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덩달아 국고채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것이다. 이날에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1.24달러까지 폭등하는 등 1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높은 유가는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운송 등 각종 경제활동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런 비용이 최종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면서다. 현 상황도 중동 사태 악화로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최근 글로벌 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은 이미 불안 심리가 지배하고 있다. 200조 570(6일 기준) 불어난 채권 대차잔고가 이를 말해준다. 연초 182조 5380억 원 대비 약 18조 원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통상 금

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반영한 금리 상단을 열어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자물가를 경유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경로를 상향 수정하게 만들며, 이는 채권금리의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다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3년물 기준 하방 지지선은 기준금리 2.50%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3.0% 수준으로 상향,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상단은 3.30~3.40%까지 열려 있다고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수출이 떠받친 일본, 제조업 식은 중국... 경기 회복 온도차

정책 변수 속 경기 차별화 뚜렷  
日, 수출·투자 힘입어 완만한 회복  
中, 제조업 PMI 50 밑돌며 부진

일본과 중국의 경기 신호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밑돌았지만 수출·설비투자·고용이 반치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중국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며 수요 회복의 약한 체력이 재확인됐다.

### ◆日, 기대 밑돈 성장률... 회복 흐름은 유지

일본의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율로는 0.2%로 시장예상을

밑돌았다. 민간소비(0.1%), 주택건설(4.8%), 설비투자(0.2%)는 늘었지만 재고가 0.2%포인트(p) 깎이면서 국내수요 기여도가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현지에서는 부진의 상당 부분이 재고 감소에 따른 것이어서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 국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1.1%로 전년 역성장(-0.2%)에서 반등했다.

월간 지표를 봐도 일본은 내수의 온기가 강하진 않지만 외수와 기업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12월 민간소비는 가구소비동향지수와 소비활동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1.4%, 0.4% 감소했고 소매 판매액도 전년 동월 대비 0.9% 줄었다. 반면 자본재총공급은 3.8% 늘었고 민

간기계수주액은 19.1% 급증했다. 1월 수출도 전기제품과 일반기계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했고, 수입은 2.5% 감소로 돌아섰다.

고용과 임금, 물가 흐름은 일본 회복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 동경사무소는 "고용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대체로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세 둔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 ◆中, PMI 다시 50 하회

중국은 제조업 경기의 체력이 다시 흔들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49.0으로 전월 49.3보다 0.3p 하락해 기준치 50을 계속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1.5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기업은 47.5, 소기업은 44.8로 내려가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생산지수는 49.6, 신규주문지수는 48.6으로 각각 하락했고 신규수출주문과 신규수입주문도 45.0, 45.6으로 모두 약해졌다.

비제조업도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2월 비제조업 PMI는 49.5로 전월보다 0.1p 올랐지만 서비스업이 49.7로 소폭 개선된 반면 건설업은 48.2로 낮아졌다. 종합 PMI도 49.5로 0.3포인트 하락했다.

현지에서는 춘절 연휴 장기화와 조업 정상화 지연에 따른 계절적 조정 성격이 크다고 보면서도, 신규주문과 신규수출 주문 부진을 감안하면 총수요의 회복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정부, 석유 수입처 다변화

원유값이 뛰면 석 달가량의 시차를 두고 교통비와 공공요금 등 서비스 가격 및 식품·공산품 등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6월 당시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석유류(39.6%) 가격이 급등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4.8%), 가공식품(7.9%), 외식(10.4%) 등 먹거리 가격이 함께 치솟았고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국제항공료(21.4%) 등도 상승 폭이 컸다.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급한 대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유 수입처의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유가 가격 급등의 국내 소비자 물가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 1면 '중동전쟁 후폭풍... '서 계속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

“원·하청 대화 제도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 기대”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 등 ‘핵심’  
시행 초기 현장 혼선 최소화 지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이달 설명회 열어 실무 방향 안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법 시행의 의미를 담은 이미지.

오늘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

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신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2nm 수율개선 속도… “HBM 매출 3배 확대 목표”

올해 말 첫 웨이퍼 테이프인 진행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단계적 전환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확보도 나서  
메모리·파운드리 동시운영으로 차별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수율을 예상보다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운드리 사업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을 3배로 확대하는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구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JP모건 코리아콘퍼런스에서 2nm 공정 수율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밝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매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서 장비 설치를 진행 중이며 첫 웨이퍼 테이프인은 올해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의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 수율 개선과 규모의 경제 확보, 가동률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가동률이 낮은 기존 라인에 첨단 패키징 공정으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략이 삼성전자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인공지능(AI) 메

모리를 결합한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2nm 이하 초미세 공정 시장은 대만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이 수율 안정화 시점을 앞당긴다면 애플·엔비디아 등 대형 팹리스 고객사 유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공정인 게이트올 어라운드(GAA) 노후로 수율을 끌어올리며 기술적 신뢰 회복에도 나서고 있다. 2나노 공정이 케도에 오르면서 과거 삼성의 핵심 고객사였던 퀄컴의 수주 가능성도 커졌으며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AMD 역시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로 합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HBM4에 들어가는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4의 두뇌를 담당하는 로직 다이 양산

수율을 현재 8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HBM4 로직 다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4nm 공정을 활용해 생산된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로직다이 통합 기술 확보를 위해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을 강화하고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HBM 사업이 결합될 경우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아파트 대출규제에 오피스텔로… 1월 거래량 65.6% ‘썰렁’

수도권 2374건, 지방 992건  
중대형 구간서 증가율 확대



올해 들어 전국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대부분 아파트에만 적용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렸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3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했다.

수도권은 2374건, 지방 992건으로 각각 63.5%, 70.7% 늘며 전국적으로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용 20~40㎡ 소형이 1830건으로 전체 거래의 54.4%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중대형 구간에서 확대됐다. 전용 60㎡~85㎡미만의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8%, 85㎡ 이상 대형도 133건으로 224.4% 급증했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중대형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전반에서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이 10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07건) ▲인천(2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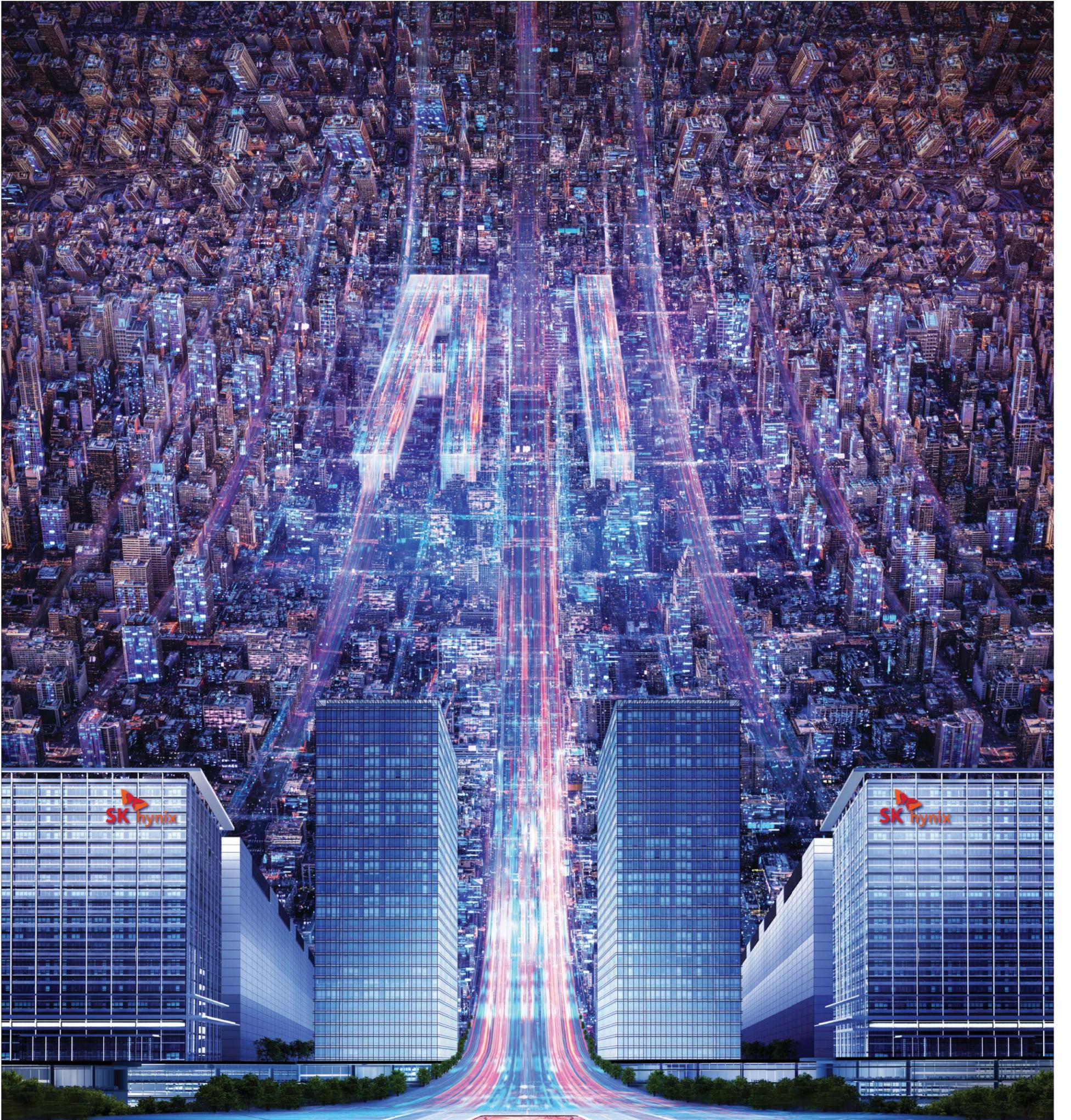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128건으로 수도권 내 단일 지역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분당구 일대는 정자동과 관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게임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와 인접한 영등포구(106건)가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고 ▲잠실·문정 법조·유통업무지구가 위치한 송파구(93건) ▲DMC와 공덕역 일대 미디어·업무밀집 지역인 마포구(80건) ▲관악구(78건)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등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강서구(72건) 등이다. 인천은 미추홀구(78건), 연수구(56건), 부평구(51건) 등에서 거래가 많았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가 24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했다. 부산 내에서는 해운대구(52건), 부산진구(40건), 수영구(24건) 일대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설 연휴로 거래 가능 일수가 줄어든 2월에도 거래 증가 흐름이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환금성이 낮고 장기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입주자와 임대 수요가 검증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대미투자특별법, 법안소위서 통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운영 골자  
여야 만장일치... 12일 본회의 상정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 마련엔 이견

여야가 9일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왼쪽부터)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박수영 야당 간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뉴시스

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충 등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외 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사용된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 정원오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원오TV’에 올린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을 변화시킨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공약으로 ▲주거안심 ▲교통혁명 ▲돌봄 등을 내세웠다. 또 ‘경제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화수도 구축’을 위해 ▲서울형 특구 조성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는 도시구조 개혁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화수도 구축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며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서예진 기자

## 조기추경 가능성에 靑 “논의 해박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최근 중동발 위기 대응에 따른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들을 많이 해박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유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사실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시장 조치를 포함해서 직접 타격을 받는 사업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고, 거기에 따른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의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내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 다. /서예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 파장 이정현 “특정인 배려 없다”

국민의힘, 계파 갈등 심화  
공관위, 오늘부터 면접 심사  
“필요하면 추가접수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절연(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추가접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특정인 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절연 등당의 노선 정상화를 요구해 온 오세훈 시장은 전날(8일) 오후 10시까지 마감이었던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요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은) 당에 대한 극도의 불만 표시”라며 “(지도부가)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것을 중도층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탈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도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은) 우리 당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단호히 선을 긋고 나간다는 다짐과 후속 조치가 당의 명의로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4선까지 하신 우리 당의 어른”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셔야 할 분이 어린애같이 떼쓰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또 조광환 최고위원은 이날 친한계와 오 시장 등을 겨냥해 “지금 우리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다”며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당내 노선 변화 등) 똑같은 요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배신자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면접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 시장 등록 없이도 공천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 7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10일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역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논의를 거쳐 추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다”며 “공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을 상대로 규정을 만들거나 배려하거나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간은 반드시 세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 추가 모집을 안 하겠다, 비위됐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고민은 이해한다면 “문을 계속 열어놓고 더 좋은 인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접수를 통해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절연’ 고심

송언석 원내대표 작심발언  
“당 차원 반성의 뜻 다시 밝혀야”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하나가 돼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해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 이 점을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에 계엄을 옹호한 사람은 없다”며 “우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무머리 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절연(絶尹)’ 노선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줄줄이 인상… 자금이탈 막는다

웰컴 ‘웰컴 주거래통장’ 금리 3% 예치금 잔액 1억까지 최대금리  
 애규온 ‘고수익자유예금’ 연 2.8% 하루 예치해도 ‘이자’ 유연한 운용  
 DB ‘DB행복파킹통장’ 최대 3.5% 금액별 금리 차등, 소액 혜택 강화



주요 저축은행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고객 자금이탈을 막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인 수신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단기 목돈을 굴릴 곳을 찾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자사 파킹통장 상품인 ‘웰컴 주거래통장’의 최대금리를 기존 연 2.8%에서 연 3.0% (세전)로 인상한다. 최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치 금액 구간도 넓혔다. 시중의 파킹통장이 소액 구간에 한해서만 최대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예치금 잔액 1억원까

지 동일하게 최대금리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연 0.8%이며, 우대 금리를 위한 조건은 일상적인 금융 거래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대 조건은 ▲당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 또는 생활비 이체 ▲자동 납부 1건 이상 ▲간편결제 또는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사용 ▲마케팅 동의 등이다.

애규온저축은행 역시 별도 우대 조건 없는 파킹통장인 ‘고수익자유예금’ 금리를 연 0.8%에서 연 2.8% (세전)로 2.0%포인트(p) 인상했다. 업계 내 우대 조건이 없는 파킹통장 상품 중 최고

수준의 금리다.

금액 한도 및 기간 제한은 없으며,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예치 기간 만료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금 입출금이 잦은 고객도 이자 손실 없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DB저축은행은 모바일 거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 최대 3.5%의 금리를 제공하는 ‘DB행복파킹통장’을 출시했다. 금리는 예치 금액별로 차등 적용되며, 소액 구간 금리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500만원 이하 예치 고객에게는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1.2%p를 더해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한다.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최고 연 2.7%,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최고 연 2.0%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 경쟁에 나선 것은 계속해서 자금이 증시로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 현상을 막고,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고객 확보의 차원이지만 주식시장까지 고려한 행보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올리는 것을 넘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아직 주식시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고, 단순 고객 확보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시상식에 참석한 하나은행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하나은행은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가 선정하는 ‘2026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Best Trade Finance Provider in Korea 2026)’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통산 25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무역금융 분야에서 축적된 하나은행의 시장 지배력과 무역금융 관련 상품·서비스 품질, 기술력 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히 무역금융 거래 규모의 확대를 넘어, 하나은행이 전문성과 손님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온 결과”라며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무역금융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KB국민은행 GS페이 통장 이용고객 20만명에 간식지원금

KB국민은행은 ‘KB GS 페이(Pay) 통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GS25에서 사용 가능한 ‘GS ALL 포인트’를 제공하는 간식지원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 중 ‘KB GS 페이통장’ 신규 가입한 고객은 물론 기존에 통장을 보유한 고객도 GS25에서 1000원 이상 GS 페이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경품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0만명에게 차등 지급된다. 이벤트 조건을 먼저 충족한 순서대로 ▲1만 5000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3만 포인트 ▲2만 5000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2만 포인트 ▲5만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1만 포인트 ▲11만명에게는 GS ALL 포인트 5000포인트가 각각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과징금 수위 18일 결론

금융당국, 은행 소명절차 등 늦어져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 관전 포인트



/뉴시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은행권의 소명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 새 안전소위를 세 차례나 열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최종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안전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추가 소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 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경우가 생기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징금이 낮을 경우 ‘숨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신한금융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

미래 경쟁력 반영 시스템 적용

신한금융그룹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인 기업 신용평가 방식은 재무 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한금융은 최근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역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존 재무 중심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 모델, 산업 전망 등 미래 경쟁력을 반영한다.

특히 부도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벤처·첨단·혁신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산업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구안’을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대우건설, 건설현장에 ‘Q-박스’ 전면도입

독자개발 범용 DX 솔루션 문서작업 시간 90% 단축

대우건설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독자 개발한 범용 디지털 전환(DX) 솔루션 ‘Q-박스(BOX)’를 올해부터 신규 건설 현장에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Q-박스는 클라우드 및 스마트 기기 기반의 통합 품질관리 솔루션이다. 현장 품질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2024년 개발이 완료돼 2025년 국내 6개 건설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쳤다. 이후 현재까지 24개 건설 현장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Q-박스의 전면 도입을 통해 현장 품질업무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실시된 실증 시험 결과, 문서작업 시간이 90% 이상 단축됐다. 또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 활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으며, 비대면 전자결제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직접적인 인건비 절감도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Q-박스는 단순한 솔루션 도입을 넘어 방대한 문서에 갇혀 있던 건설 현장 문화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2026년 신규 현장 전면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스마트 건설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스마트글래스 출하량 급증... 전자업계, 신제품 경쟁 본격화

삼성 구글 등 글로벌 협업 활발  
메타 '메타 레이벤' 시장 선점  
애플 아이폰 연동 제품 개발 중



사용자가 MWC에서 삼성전자의 AI 스마트 안경인 갤럭시 글래스를 경험해보고 있다.

스마트폰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 인공 지능(AI) 기기로 스마트 안경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안경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미국 메타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스마트안경을 앞세워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9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글래스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97% 급증해 처음으로 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40년 2000억 달러(약 29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스마트 안경이 차세대 핵심 AI 기기로 떠오르는 이유는 안경 렌즈를 통해 사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간편함 때문이다. 통화는 물론 통역도 가능해진다.

스마트 안경 시장에는 페이스북·인스

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먼저 선점했다. 메타가 개발한 '메타 레이벤' 시리즈는 전체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00만개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메타 레이벤 사용자는 "안경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번역문이 나타나며, 상대방과 소통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자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등 글로벌 전자 기업들도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갤럭시글래스(가칭)'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갤럭시 글래스는 사용자 눈높이에 맞춘 카메라로 이르면 연내 출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 안경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점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앞서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출시한 경험이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미국의 안경 브랜드 위비파커와 협업해 스마트글래스를 개발 중이다.

김정현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지난 6일 MWC에서 진행된 미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폼팩터를 검토한 결과 안경은 가장 강력한 후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경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 AI를 위한 최고의 입력 장치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이 안경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있다"며 "하드웨어는 유지되되 지능은 클라우드와 연결된 스마트폰에

서 빌려오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갤럭시 글래스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AI 웨어러블 시장을 본격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연동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마트 안경은 물론 카메라를 탑재한 에어팟을 아이폰과 연결해 사용자 맞춤 환경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은 내부 코드명 'N50'으로 알려진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50은 디스플레이 없이 아이폰과 연동되는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해상도 카메라와 환경 인식용 센서를 탑재했다. 해당 제품은 외부 안경 브랜드와 협업하지 않고 자체 프레임 설계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N50은 올해 12월 양산을 시작해 이르면 올해 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실증도시 누빈다

'K-자율주행 협력모델' 선정  
셔클 플랫폼 기반 서비스 예정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차량이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누비며 데이터 축적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국토교통부 주관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의 자동차 제작사와 운송 플랫폼사로 각각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로 도시 단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실증을 기반으로 양질의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의 표준 수립과 제도 정비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실증사업에서 ▲자율주행 개발전용 차량 제작 부문 ▲운송 플랫폼 부문을 담당할 사업자로 각각 선정되며 맞춤형 자율주행 차량 제조 역량과 AI 기반 SW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차량 제작을 위해서는 차량의 공급은 물론, 자율주행 기술 방식에 따른 센서 추가 장착, 차량 제어 연동, 무선 업데이트(OTA)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한 다양한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과 웨이모 로보택시에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파운드리 방식으로 제공하며 자율주행 기술별 전용 차량 제작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의 기술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개발전용

차량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량 및 운영 데이터를 개발사들과 공유해 기술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기아는 도시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셔클(Shucle)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특화 호출·배차 플랫폼을 이번 실증사업에 투입한다.

현대차·기아 모빌리티사업실 김수영 상무는 "이번 실증사업은 현대차·기아가 보유한 자율주행 통합 역량을 실제 도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차량과 자율주행 기술,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성과가 확산 가능한 표준으로 이어지도록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로템, 미래 첨단무기 R&D 전략 공개

협력사 '상생성과 공유제' 도입  
부품 국산화 등 금융지원 확대

현대로템은 지난 6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공장에서 '2026 현대로템 디펜스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협력사의 부품 국산화와 미래 첨단무기 연구개발(R&D) 지원 전략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올해부터 협력사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해외 사업 신규수주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협력사와 나누는 '상생성과 공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품 국산화 개발 성공 후 최초 계약이 체결될 당해와 이듬해에 국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분의 100%와 50%를 각각 협력사에 환원하는 구조다. 해당 국산화 부품이나 기술이 장기간 거래로 이어질 경우 협력사의 수주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의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협력사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펀드'도 확대한다. 기존 70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린 15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협력사 요청 시 금융기관 예탁 재원을 활용해 투자 자금과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6일 협력사, 신한은행과 3차 간 '현대로템 협력업체 상생성장 및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동반성장펀드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협력사 대상 무역금융 지원, 보증, 대출 우대금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협력사의 미래 첨단무기 개발과 부품 국산화, 성능 개선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현대로템은 내년까지 2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에는 차세대 유·무인 지상무기 플랫폼, 항공우주, 인공지능(AI), 무인화 관련 핵심 부품 국산화와 성능 개선 등이 포함된다.

기술 지원과 교육 사업도 병행한다. 협력사와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협력 교류를 추진하고 협력사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거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정부 과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술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삼성메디슨 초음파 치료 시장 진출

히스토소닉스 전략적 협력 추진

삼성메디슨이 초음파 기술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삼성메디슨은 비침습 초음파 기반 암 치료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히스토소닉스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며, 진단을 넘어 치료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성메디슨의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20'과 에디슨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구현이다.

양사는 정밀 진단 영상 기술과 첨단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 솔루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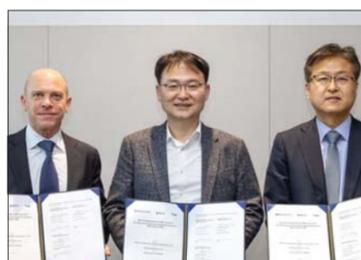
## HD현대, 원자력 기반 전기추진선 개발 추진

미국선급협회 공동개발 협약 체결

HD현대는 최근 미국선급협회(ABS)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기본 설계 ▲전장품 사양 선정 ▲전력기기 배치 설계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최대 100MW급 출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전기추진 시스템에 접목해 새로운 선박 동력원으로서 SMR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HD현대 이번 개발 과정에서 장시



HD현대가 미국 선급협회(ABS)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

간 항해와 고속운항이 요구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에 맞춘 전력 운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쌍축(Twin Screw)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추진력과 기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 삼성그룹, 공채 실시... DS부문 인재 확보

전자·물산 등 18개사 신입사원 채용

삼성그룹이 오는 10일부터 상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삼성은 국내 주요 그룹 가운데 대규모 공채 제도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8개사가

각각 공고를 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는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HBM4(6세대)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실 것이라 분석이다.

/구남영 기자

# 월급만으론 못 버틴다... 中企 근로자 '생계형 투잡' 늘었다

## 중소벤처연구원 '부업 실태분석'

부업 인원 10년 새 37.1% 증가  
재직 중 부업 비중 2%대 넘어서  
50대·소기업 종사자·임시직에 집중  
유연근로·대체인력 지원확대 필요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추가 근로 허용, 1인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제안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 9일 내놓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근근로자의 일시휴직 및 부업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가운데 투잡 등 부업을 뛰는 이들의 비중(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1.56%에서 2024년 2.01%, 2025년 2% 등으로 2%대를 넘어서었다.



특히 부업자 숫자는 2020년 27만7000명에서 2025년에는 37만9000명으로 이 기간 10만2000명(37.1%)이나 늘었다. 부업자비중도 최근 5년간 0.43%포인트(p) 늘었다.

종사자가 적은 기업일수록 부업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평균 2%) 기준 부업자 비중은 4인 이하가 2.91%로 가장 높았고 5~29인 1.98%, 30~299인 1.47%로 각각 파악됐다.

계약기간 없이 계속 근로를 하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도 부업하는 인원이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많은 2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 부업자 비중은 2015년 당시 42.6%에서 지난해엔 52.6%로 10년새 10%p 늘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이들 상용근로자 역시 생

계를 위해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직의 부업이 많았다. 부업하는 중소기업 임시직 비중은 42.4%로 대기업 임시직 부업자(21.8%)보다 20.6%p 높고, 중소기업 전체 임금근로자(24.5%)보다 17.9%p 높게 나타났다.

연령 중에선 중소기업 재직자가운데 50세 이상의 부업자 비중이 53.1%로 39세 이하(27.6%), 40~49세(19.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고서를 책임 작성한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기업과 임시직 근로자 중심으로 부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소득격차 확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52시간 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자녀교육 등의 이

유로 추가소득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부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일시휴직 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수는 3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 일시휴직자(41만3000명)의 79.3%를 차지하며 코로나 19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 증가를 위해 부업하는 이들의 근로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며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활용한 보육, 컨설팅, 자금 등 지원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부업을 더 할 수 밖에 없는 29인 이하 소기업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관련 사업도 개편해야 한다"면서 "29인 이하 소기업의 일시휴직자를 위해 해선 저학력 고령 휴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경력전환 지원, 육아 휴직자를 위해 해선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상향 등이 각각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중기부

### "소상공인 정책 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기반 '맞춤형 정책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고 중심으로 운영한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단순 사업관리 용도에 머물렀던 소상공인 DB(약 134만명)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비스는 소상공인24DB에 등록된 정보 중 정책정보 홍보 수신에 동의한 81만명을 대상이다. 중기부는 정책 대상 요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정보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첫 번째 맞춤형 정책 알림은 여성 1인 자영업자가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12일 소상공인24DB 내 여성 1인 자영업자 중 정책정보 홍보에 동의한 10만명에게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LS그룹, ESS·DC·데이터센터 솔루션 경쟁력 부각

##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참가 배터리 소재·모빌리티로 외연 확장 계열사 시너지로 미래 사업 강화



'인터배터리 2026' LS 부스 조감도. /LS그룹

LS그룹이 11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배터리 소재부터 전력·데이터센터·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미래 전략 사업 역량을 선보인다.

9일 LS그룹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6개 계열사와 공동으로 45부스(406㎡)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직류(DC) 솔루션, 데이터센터, 미래 소재, 전기차(EV), 스마트팩토

리 등 6개 테마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솔루션과 기술 역량을 소개한다. 특히 차세대 ESS와 직류 패키지 솔루션 등 전략 신제품을 전면에 배치한다. '올인원 ESS 플랫폼(All-in-One ESS Platform)'은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상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고 사전 고장을 예방하는 차세대 ESS 솔루션이다.

LSMnM은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각화한 콘텐츠를 통해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원료 확보부터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기반 공급망 구축 계획을 설명한다.

LS머트리얼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피크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고속 충·방전 에너지저장 솔루션 '울트라캐퍼시터(UC)'를 소개한다. AI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셀듈(CellDule)'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다.

LS알스코는 합작사 하이엠케이(HA-IMK)와 함께 배터리 제조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알루미늄 소재와 핵심 부품을 선보이고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첨단 소재 기술을 강조한다.

LS사우타는 데이터센터 인프라관리 시스템(DCIM) 솔루션 '비욘드 엑스 큐브(Beyond X CUBE)'를 공개한다. AI 영상 분석 기반 배터리 화재 감시, 소규모언어모델(SLM) 기반 배터리 진단, AI 기반 온도 제어, 실시간 유체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열·기류 분석 등 통합 설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양사, 이온교환수지 기술력 선보여

## 바이오 발효 엑스포 차이나 참가

삼양사는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중국 제남에서 열리는 국제 생물발효전시회 '바이오 발효 엑스포 차이나'(BIO CHINA)'에 참가해 차별화된 이온교환수지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바이오 차이나는 바이오 발효 산업과 연관된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물발효전시회로 식품, 음료, 바이오제조, 바이오농업,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한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삼양사는 식품과 바

이오 시장에서 아미노산과 유기산의 고순도 정제 기술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관련 공정에 활용되는 프리미엄 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제품을 전시한다.

이온교환수지는 0.3~1mm 내외의 알갱이 형태로 된 합성수지로 표면에 전하가 있어 특정 물질을 흡착하거나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특히 입자 크기와 구조가 균일한 균일계 이온교환수지는 분리 성능과 재현성이 높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자력 등 첨단 산업에서도 필수 소재로 꼽힌다.

/원관희 기자

# SK인텔릭스, 나무엑스로 글로벌 진출 모색

## MWC서 AI 웰니스 플랫폼 공개 보안·헬스케어 기능 강화

SK인텔릭스가 'MWC 2026(Mobile World Congress 2026)'에 참가, AI 웰니스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를 공개하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했다.

9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 마련한 SK인텔릭스 현장 부스에는 글로벌 파트너사와 업계 관계자, 인플루언서, 크리

에이터 등 총 7만5000여 명이 방문했다.

SK인텔릭스는 나무엑스의 자율주행과 100% 음성 제어가 가능한 에어 솔루션(Air Solution), 비접촉식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등 주요 기능을 하나의 디바이스에 통합한 AI 기반 웰니스 플랫폼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처음 공개된 '시큐리티(Security)'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긴급 출동형 '보안 경비 서비스' 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승호 기자

## 기정원

### 스케일업·글로벌 팀스 일반 운영사 59곳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케일업 팀스·글로벌 팀스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일반 운영사 5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9일 기정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일반 운영사' 제도에 따라 처음 선정한 것으로,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기업과 함께 자유롭게 경쟁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기존 24개 특화 운영사 컨소시엄에 더해 이번에 일반 운영사가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운영사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망기업에도 더욱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된 일반 운영사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사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 투자사로 구성되며 최대 6년간 활동한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부산·경남·강원·충남 등에 본사를 둔 지역 거점 투자사 5개사도 포함됐다.

스케일업 팀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직접 발굴·투자한 유망 중소기업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연계해 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전쟁 쇼크에 빛내서 산 주식 '위기'... 개인 강제청산 공포

신용거래용자 34조 '역대 최고' 위탁매매 미수금 강제청산 급등 마통 잔액, 사흘만에 1.3조 늘어

회사원 박모(48) 씨는 올해 초부터 A사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더 늦기 전에 사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주가 상승을 확신하고 현금 4000만원에 신용용자 2000만원으로 주식을 샀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시장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신용용자 이자를 내며 버티던 그는 결국 이달 초 강제 청산(반대매매)을 당했다. 박씨의 최종 수익률은 -57%였다.

이러한 '빛투' (빛내서 투자)와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다시 급락하자 빛을 내 산 주식들이 강제 처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ChatGPT로 생성한 '급락하는 국내 증시에 괴로워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이다. 이란 전쟁이 증시에 처음 영향을 줬던 지난 3일부터 변

동성 장세가 지속됐던 사흘간 이 잔고는 매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용거래용자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일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로 청산되는데, 특히 급락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로 이어진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초단기 빛투로 분류되는 이 미수금은 지난 5일 2조1487억원으로, 전쟁 발발 이전보다 배가 급증했다. 이 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된다. 실제 전쟁 여파로 증시가 지난 3~4일 폭락했던 바로 다음날인 5일 강제로 처분된 주식은 77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대로, 지난 달 27일 76억원의 약 10배에 달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강제청산 비율도 6.5%로 급등했다. 하루 전인 지난 4일 2.1%의 3배를 웃돌았고, 지난 3일 (0.9%)의 7배에 달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후 급락장에서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 처분된 것으로 풀이

된다. 여기에 은행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마통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2022년 말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마통 잔액은 지난 3~5일 사흘 만에 무려 1조3000억원이 늘어났으며,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용거래와 위탁매매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빛투는 하락장에서 지수를 더욱 끌어내릴 수 있는 트리거(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미수거래의 경우 이를 안에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전날 증가보다 최대 30% 낮은 금액으로 강제 처분되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금감원, 투자사기 기승에 소비자경보 발령

증시 변동성 커지며 가짜뉴스 늘어 높은 수익 보장, 유사수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동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는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 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동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성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건수는 295건으로 전년 (410건)보다 감소했다. 당국은 이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레버리지 투자자 손실 확대와 금융사 건전성 악화 등 관련 리스크들을 점검했다. /허정윤 기자

## 정은보 "한국물 파생상품 24시간 거래"

(거래소 이사장)

미국 글로벌 로드쇼 위해 출국 "파생상품시장 유동성 제고 기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이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 거래시간 전면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과 한국 증시 글로벌 로드쇼 개최를 위해 출국했다. 한국거래소는 정 이사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보카라톤에서 독일 파생상품 거래소 유렉스(Eurex)와 미국 ICE퓨처스US(ICE Futures US)와 각각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 거래시간 확대를 위한 계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국제파생상품협회(FIA)가 주최하는 'FIA 국제파생상품 컨퍼런스' 현장에서 개최된다. 거래소는 이번 계약 체결로 투자자들이 한국물 파생상품을 거래시간 제약 없이, 유럽



과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시간 전면 확대 대상 상품은 ▲Eurex에 상장된 MSCI Korea 지수선물 ▲ICE Futures US에 상장된 FTSE South Korea 지수선물 등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계약 체결로 미주(ICE) 및 유럽(Eurex) 거래소를 통해서도 한국물 지수선물의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KRX코스피200선물을 포함한 글로벌 한국물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각 거래소 대표들도 한국물 지수 파생상품 접근성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기대감을 표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금감원-한은-기상청 금융권 기후리스크 점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상기후와 탄소 감축 정책 강화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금융 시스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9일 기상청과 협력해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물리적 리스크)과 탄소 감축 정책 강화에 따른 전환 비용(전환 리스크)이 기업 수익성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허정윤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금감원, 내부 제보자 보상제도 도입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모펀드 업계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만 금감원 금융투자부원장보와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준법감시 담당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준은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 ▲자율 점검 체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부통제 조직 측면에서는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준법감시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핵심 운용 업무에서는 배제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준수 기준도 구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스 월)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이 업무 단계별로 이해 상충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품 수수나 부당한 향응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허정윤 기자

## 황성업 회장, 글로벌 자본시장 협력 확대

(금투협)

국제증권협회협의회 총회 참석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국제자본시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K-자본시장 홍보와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금투협은 황성업 회장이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열리는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International Council of Securities Associations)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SA는 주요국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협의체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회원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 기구다. 미국 등 18개국 2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차총회는 회원총회와 오픈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회원총회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과 회원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각국 자본시장 정책 동향과 시장 구조 변화 등을 공유하는 세션도 마련돼 글로벌 자본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픈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상품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채권시장 유동성 확대, 시장 인프라 혁신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 정부합동감사단, 농협회장 등 ‘착복·금품수수 의혹’ 고발

농협중앙회 등 정부합동 특별감사  
공금유용·특혜성 대출 등 14건 수사  
강호동 회장, 예산 4.9억 유용 의혹  
조합장엔 과도 기념품·상조비 논란  
근본적 농협 개혁방안 마련 예정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  
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  
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  
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  
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  
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  
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  
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  
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메트로신문

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  
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  
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  
적이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  
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  
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  
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

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  
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  
대회 협찬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  
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  
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  
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  
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

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  
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  
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  
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상조비를 지원  
받았으며, 중앙회·자회사 임원들도 황  
금열쇠·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  
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  
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  
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  
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  
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  
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  
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  
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  
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  
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  
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  
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  
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유통 개선’ 등 논의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현장·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위  
한 목적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  
체’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  
관, 정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0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  
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이  
번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  
행 방안과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세부 내용  
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설치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

/뉴시스

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 8월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 정보를 쉽게 비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으로 올해 하  
반기에 시범 출시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  
을 반영해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친 농산물 유통 관련 현안을 논  
의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업담합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경  
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  
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익편취 등 주요 위반 행위  
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현행보다 대폭 상  
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과  
감경제도 축소를 통해 징벌적 성격을 강  
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  
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

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등 모든 위반 유  
형의 부과기준을 하한이 크게 오른다. 담  
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부  
과기준을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하한이 조정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  
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  
다.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상향

해 약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액과징금 하한도 대폭 상향된다. 대  
표적으로 중대성이 약한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의 정액과징금 하한은 500만원에  
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  
회 위반 전력이 있을 때 10%를 가중하지  
만 앞으로는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번이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대 100%  
까지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전, 베트남에 231만弗 규모 e플랫폼 진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공급

한국전력이 인공지능(AI) 기반 발전  
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분야 e플랫폼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한전은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 산하의 제3발전총공  
사(EVNGENCO3)와 지능형 디지털발  
전소(IDPP) 플랫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푸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총 3개 호  
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1만 달러, 사업  
기간은 16개월이다.

IDPP 플랫폼은 한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솔

루션으로 초대용량 발전소 운영 데이터  
의 실시간 수집·저장과 AI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해 설비를  
유연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3개 호기 구축을 시작으로  
EVNGENCO3과 총 14개 호기(6.3GW)  
전체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나아가 베트남 전역 68개 발전소를 대상  
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약 4760만 달  
러, 동남아시아 전체 확대 시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중장기적 매출 잠재력을 확  
보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e플랫폼 시장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  
척하고, 한전KDN과 오션정보기술 등  
국내 4개 중소기업과 구축한 동반성장  
모델로 그 성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상  
징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기대, 기술직업훈련 특화 학·석사 양성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기술직업훈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하고 학사·  
석사 연계 교육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기대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  
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인  
재학부를 신설하고, 개발도상국 기술직  
업훈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석사과정  
을 개편하는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학사과정에는 총  
55명이 입학했다. 신입생들은 우즈베키  
스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14개국 출신으로, 자비유학생과 정부조

청 외국인장학생(GKS)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 두  
전공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  
정은 영어와 한국어 트랙을 병행해 운영  
되며 ▲초기 학업 적응 ▲전공 역량 강  
화 ▲국내 산업 취업 연계까지 단계적으  
로 설계됐다.

1~2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와 함께  
수학·물리·전산 등 기초과목과 한국사회  
이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3학년부터  
는 기계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전공 교육  
이 시작되며, 4학년에는 심화 공학교육  
과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  
화한다. 대학은 졸업 이후 국내 산업현  
장 취업과 국내 정주까지 연계 지원할 계  
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 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1

##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 경남도, 6년간 '융합·고급형 AI인재' 총 6000명 육성한다

경남형 AI 인재양성 사업 본격화  
1200억 투입... 年 1000명 양성  
지역대학과 신규 공모사업 총력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

경남도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시대' 선도를 위해 대대적인 인재 양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정부의 인재 양성 전략에 발맞춰 도내 주력산업과 AI가 결합한 실무 중심의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경남형 AI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융합·고급형 AI 인재'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특히 부처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산업통상부는 현장적용, 교육부는 기초교육 등 분야별 AI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AX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고급 인재'와 '현장형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제조·방산·우주항공 분야 등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남형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향후 6년간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000명씩, 총 6000명의 AI 융합·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 수준도 기초 수준의 실무 인력으로부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고급 연구 인력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와 직군을 아우르는 맞춤형 AI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도는 또, 지역 대학과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AI 중

심대학'과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AI X대학원)'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AI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교육 체계를 AI 중심으로 혁신해 학·석사급 융합·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공모를 신청한 후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선정 시 8년간 총 2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의 AI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과 실습 공간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X 대학원 공모에 선정되면 경남의 주력산업인 로봇·자동차·스마트공장·우주항공 등 현장의 현안을 해결할 도메인 전공 기반 AX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되며, 6년간 165억원 규모 지원을 받아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도는 참여 대학을 발굴하고 지역 주력 산업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올해 AI 대학과 AX 대학원을 각각 1개소 이상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산업 현장의 AX 전환과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해 청년·구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준별(초·중·고급) AI·SW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ICT 이노베이션 스캐어 사업'은 매년 구직자·재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초·중급 교육을 하고,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등 지역 특화 산업의 AI 전환과 취·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metro

## 지역 이모저모

###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 시민 아카이브 지원단체 모집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는 올해 '광주시민사회 아카이브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축적하고 기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시민사회단체다. 총 5개 단체 내외로 선정된다.

선정단체에는 단체 창립 이후 활동 자료(문서·사진·영상 등)의 수집·정리를 위한 지원과 함께 사업비 2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북문화관광공공

#### AI 활용 맞춤형 여행코스 공개

경북문화관광공공사는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를 분석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북 지역별 맞춤형 여행 코스'를 공개했다.

이번 코스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실시간 소셜 데이터와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자료를 소셜 분석 전문 AI로 융합 분석해 도출했다. 방대한 방문 후기 속 관광객의 실제 의견을 학습하고 대표·추천 키워드를 선별해 분석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경북=김진근 기자

###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 지방공기업 예산분석 연구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지난 6일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고 관련 정책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 및 재정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 구조 분석을 토대로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 부산시, 'SMR 제작지원센터' 착공

총사업비 295억... 내년 완공 목표  
전자빔 용접 등 핵심 장비 12종 갖춰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조감도./부산시

부산시는 9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미음동 1529-5 일원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MW 안팎으로, 대형 원전(1000~1500MW)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인 소형 원전이다.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한 뒤 현장 조립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경덕 행정부시장, 김도읍 국회의원, 시의회 부의장, 시·구의원, 한국기계연구원장, 지역 대학 총장, 원자력 관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함께 선정된 경남·경북보다 착공 시점이 빠르며 부산시는 2021년 사전 기획, 2023년 기획 용역 착수 등 준비 작업을 일찌감치 진행해 왔다. 공모 최종 선정은 2024년 4월이었다.

센터는 총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부지 약 400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 후 2028년까지 전자빔 용접 시스템, 레이저 클레딩 시스템 등 핵심 장비 12종이 차례대로 갖춰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7@

## 경주시, 4년 만에 인구 순유입 전환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경주시 인구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고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인구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주시 총인구는 24만 4055명으로 집계됐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는 1604명으로 나타났다지만, 전입·전출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는 890명 증가해 전체 인구 감소 폭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인구 유출 흐름이 4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입 사유는 주택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가족 26%, 직업 23%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지역은 울산·대구·부산·포항 등 인근 대도시가 중심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변화도 눈에 띄었다. 건천읍은 전년 대비 4095명이 증가해 시 전체 인구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황성동 역시 인구가 증가해 경주의 인구 순유입 전환을 이끈 주요 지역으로 분석됐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 경주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0.8명과 경북 평균 0.93명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 '포항형 전원주택' 경쟁률 10.6대 1

100호 모집에 1055건 접수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표 주거복지 정책 '포항형 전원주택'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현장 접수를 진행한 결과, 100호 모집에 총 1055건이 접수돼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포항 지역 청년뿐 아니라 포항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타 지역 거주자 110세대도 신청해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했다.

유형별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청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포항형 전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현장 접수 모습.

년주택은 80호 모집에 1009건이 접수돼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혼부부 주택은 20호 모집에 46건이 신청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올해 신청 요건을 완화한 점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 울주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재산권 보호, 행정 신뢰 제고 나서

울산 울주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대상은 울주군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개소다. 시설별 도로 96개소(29만8124㎡), 주차장 3개소(7175㎡), 공원4개소(701㎡),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14만8636㎡) 등으로 집계됐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부산시

#### '리브 골프 코리아' 유치

부산시는 세계적인 골프 리그인 리브 골프(LIV Golf)의 국내 대회인 '2026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5월28~31일 부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2년에 출범한 리브 골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PIF)가 후원하는 프로 골프 리그로 높은 상금을 중심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대회다.

올해 리브 골프는 10개국(북미·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상금 약 4억2000만 달러(약 6100억원)를 두고 경쟁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내수 막히자 해외로... 대형마트, 美·베트남서 활로 찾았다

## 내수침체, 위기를 기회로

**이마트 美 현지화 전략 실적 선전**  
**롯데마트 베트남서 해외이익 확대**  
**홈플러스 회생 절차 속 생존 모색**

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에 시장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자 국내 대형마트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미국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 중이다. 해외 시장을 새로운 수익축으로 삼아 실적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인 것이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의 미국법인 PK리테일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2조 408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20억원으로 134% 급증했다. 특히 이 법인의 이익 기여도는 이마트 전체 영업이익의 약 33%에 달해 해외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공격적인 점포 확대와 현지 맞춤형 상품 전략이 있다.

이마트는 2018년 PK리테일홀딩스를 설립하고 같은 해 미국 유통기업 굿푸드홀딩스를 인수하며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점포 수는 2019년 27개에



베트남 롯데마트 하노이센터점 매장 입구 전경. /롯데쇼핑

서 지난해 말 57개까지 늘었다. 굿푸드홀딩스가 운영하는 뉴시즌스마켓과 브리스톨팜스 등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이마트의 강점인 신선식품 상품기획(MD)과 매장 운영 노하우가 현지 식문화 트렌드와 결합했다. 유기농 식품과 간편식(HMR)을 선호하는 미국 중산층 수요를 공략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마트는 올해 브리스톨팜스 할리우드 셀마점 등 신규 점포를 추가로 열고 기존 매장 리뉴얼도 병행해 북미 프리

미엄 식료품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동남아 시장을 성장 거점으로 삼았다. 지난해 롯데마트의 해외 매출은 1조 5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국내 사업이 부진한 상황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해외 사업의 존재감은 더욱 크다. 국내 사업이 지난해 56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반면, 해외 사업에서는 4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국내 부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은 40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해외 전체 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베트남 할인점 사업은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마트의 성과 배경으로는 현지 밀착형 식료품 경쟁력과 복합몰 시너지가 거론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등 대형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집객력을 높이며 베트남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했다.

롯데마트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하이퍼마켓'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단독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복합쇼핑몰 개발 역량을 결합해 동남아 시장에서 라이프스타일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해외 사업이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으려는 유통업계의 체질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해외 사업 기반이 없는 홈플러스

는 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가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해 오는 5월 초까지 회생 절차가 이어지게 됐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긴급 운영자금 투입과 점포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회생안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부실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이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는 연내 41개 정리 대상 점포 가운데 19곳을 폐점할 계획이다. 다만 점포 수가 줄어들 경우 대형마트 업태의 핵심 경쟁력인 '규모의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점포가 줄면 상품 매입량이 감소하고 가격 경쟁력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이커머스 확산과 소비 둔화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대상 청정원, 3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핵심 BI 디자인 요소 숫자 '30'에 반영

대상 청정원이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제작한 엠블럼을 9일 공개했다.

청정원은 1996년 출범 이후 깨끗한 원료와 정성을 바탕으로 장류, 소스, 간편식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장하며 국내 식문화를 선도해 온 대한민국 대표 종합식품브랜드다. 이번 엠블럼은 그동안 청정원이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해 소비자와 함께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발됐다.

청정원 30주년 기념 엠블럼은 청정원 BI(Brand Identity)의 핵심 디자인 요소를 숫자 '30'에 녹여내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정원 BI의 타원 형태와 곡선 두께감을 엠블럼에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대



청정원 브랜드 론칭 30주년 기념 엠블럼.

표 메인 컬러인 '프레시 블루(Fresh Blue)'와 '트루 옐로우(True Yellow)'를 활용해 일관성을 높였다.

새 엠블럼은 앞으로 대형마트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 내 홍보물은 물론, 대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을 비롯한 네이버, 쿠팡, 컬리 등 주요 온라인 채널의 배너 및 제품 상세 페이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정원 BI도 업그레이드했다. 폰트와 심볼 마크의 굵기, 비율 등을 조정해 다양한 환경에서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신원선 기자

## 롯데온, 반려·교육용 로봇까지 판매 확대

'게이즈샵' 입점... 로봇 12종 선봬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Lotte On)은 프리미엄 테크 라이프스타일 전문점 '게이즈샵'을 공식 입점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한 로봇 12종 판매를 시작한다. 최근 로봇청소기, 서빙 로봇 등 로봇 기술이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롯데온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로봇 제품을 직접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군을 확대했다. 단순 가전을 넘어 하이엔드 테크 상품까지 카테고리 확장을 강화한 것이다.

게이즈샵의 대표 상품은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로봇 'G1'이다. 3100만 원대 프리미엄 모델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복싱 경기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이와 함께 '로봇게'로 불리는 4족 보행 로봇 'GO2 AIR'와 'GO2 PRO'도 선보인다.

교육용 로봇도 준비했다. 실시간으로 바둑 대결이 가능한 '센스로봇GO'은 로봇 팔이 직접 바둑돌을 놓는 생생한 대국 환경을 구현했다. /신원선 기자

## 쿠팡 "닌텐도·플레이스테이션 한자리에"

15일까지 '게임 페스타' 진행  
콘솔·게임밍 노트북·주변기기 할인  
'닌텐도 스위치 2' 한정 특가도 선보

쿠팡이 글로벌 게임 및 디지털 브랜드가 참여하는 '쿠팡 게임 페스타(Game Festa)'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닌텐도(Nintendo), HP, 레노버(Lenovo), 로지텍(Logitech), 벤큐(BenQ), 레이저(Razer), 앱코(ABKO)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가 참여한다. 행사 대상 품목은 게임 콘솔과 타이틀을 비롯해 게이밍 노트북,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게이밍 TV, 게임 주변기기 등이다.



쿠팡이 게임페스타를 진행한다. /쿠팡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제품과 브랜드별 대표 상품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닌텐도의 차세대 기기인 '닌텐도 스위치 2'가 한정수량 특가로 준비되어 있

며 로지텍은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 대표 제품인 '로지텍 PRO X SUPERLIG HT 게이밍 무선 마우스(블랙)'를 행사 기간 동안 31% 할인된 가격인 10만 9000원에 판매한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지난 5일 출시된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를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PC 및 Mac 환경을 지원하며, 블루투스(Bluetooth) 또는 동봉된 USB 케이블(C to C)을 통해 윈도우 PC에 연결 가능하다. 스팀(Steam)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정밀한 조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N서울타워, 도심 봄축제 '블라썸 페스타'

28일~4월 19일 벚꽃 시즌 행사 개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N서울타워가 다가오는 벚꽃 시즌을 맞아 '2026N서울타워 블라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N서울타워는 매년 봄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도심 속 대표 벚꽃 명소다. 서울의 전경과 벚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실제로 봄 벚꽃 시즌에는 방문객이 평소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꼽힌다.

올해 N서울타워 블라썸 페스타는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남산 와인페어 ▲블루밍 라이츠 ▲

블라썸 뷰다이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먼저 '블루밍 라이츠'는 일 년 중 단 한 번, 벚꽃 시즌에 맞춰 N서울타워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조명 연출 행사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6시 이후 매시 정각부터 30분간 진행되며, 벚꽃 빛으로 물드는 남산의 밤을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다.

N서울타워의 F&B 다이닝 브랜드 엔그릴, 한국, 더플레이스 다이닝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블라썸 뷰다이닝'도 마련했다. 서울 도심 전경과 벚꽃 풍경을 함께 감상하며 미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원선 기자

## SSG닷컴

### '패션명품 쓱세일' 온다

의류·잡화 등 최대 60% 할인

SSG닷컴이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패션명품 쓱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봄·여름 시즌 의류와 잡화, 스포츠웨어 등을 최대 60% 할인가에 선보인다.

패션은 트래디셔널 캐주얼 브랜드 상품에 혜택을 집중했다. 폴로 랄프로렌은 호주 오픈 캡슐 컬렉션을 쓱닷컴 단독 상품으로 제공한다. 빈폴은 봄 신상품 단독 특가전을, 라코스테는 최대 30% 할인하는 브랜드 워크를 개최한다. 프론트 로우는 베스트셀러 상품을 최대 60% 할인하며 H&M은 3·6·9만원 이상 구매 시 각 10·15·20% 추가 할인하는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특신 다음은 스킨부스터... 제약바이오, 에스테틱시장 공략

**동국제약, '인힐로+' 판권 계약 휴젤 필러 사업, 작년 호실적 견인 제테마, 필리핀서 260억 MOU**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포스트 특신 시대를 이끌 차세대 먹거리로 '스킨부스터'를 낙점한 모습이다. 기존 포트폴리오에 스킨부스터 신제품을 도입하거나 해외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K 에스테틱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헬스케어 사업을 고도화하며 더마 화장품에서 미용의료 영역으로 입지를 지속 확장한다.

동국제약은 최근 비에스팜코리아와 4등급 의료기기 '인힐로 플러스'에 대한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인힐로 플러스는 이중 히알루론산을 갖춘 스킨부스터 제품이다. 2ml 용량의 주사기 형태로 설계됐고 저분자 및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한다. 이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는 기전을 갖춰 세포외기질(ECM) 환경을 개선해 준다.



'인힐로 플러스'

/동국제약

동국제약은 이번 인힐로 플러스 계약 체결로 국내 미용의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들어 에스테틱 전문성에 중점을 두며 추진한 제품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선보인 신제품 스킨부스터 마데키엘의 경우,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과 고순도 키토산 기반 이중 제형(리퀴드 투 젤)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를 이뤘던 제품이다.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으로는 기존 벨라스트에 이어 신제품 케이블린을 출시하기도 했다.

동국제약은 이처럼 종합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성장세까지 기록하고 있다. 2017~2024년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 연평균 성장률은 약 19% 수준이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인힐로 플러스는 히알루론산 기반 인젝터블 스킨부스터 제품인 만큼 앞으로도 제품 라인업을 확충하고 공급망 확보, 수익성 개선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미용의료 시장에서 보툴리눔 특신으로 강점을 보여 온 기업들도 스

킨부스터 등으로 후속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휴젤은 필러 및 스킨부스터 부문에서 '바이리즌' 제품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리즌 스킨부스터 히알루론산은 고순도 히알루론산을 처방해 피부 보습, 재생, 잔주름 개선 등 전반적인 피부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가교된 히알루론산을 활용해 유지 기간이 비교적 길고, 물성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휴젤의 필러 및 스킨부스터 사업은 지난해 전체 호실적에 기여하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필러 및 스킨부스터 연간 매출은 1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이밖에 기존 주력 사업인 특신 연간 매출은 23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전체 연간 매출은 4251억원, 영업이익은 2016억원, 순이익은 1440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휴젤 측은 "보툴리눔 특신 '보툴렉스', 히알루론산 필러 '더채움' 및 '바이리즌' 등의 판매가 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도 스킨부스터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올해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뉴라미스 하트', '뉴라미스 스킨인핸서'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당 제품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선보인 신제품들이다.

해외 시장 진출도 공격적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에스테틱 기업 제테마는 최근 필리핀 최대 에스테틱 전문 유통사인 '이노메디스'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약 260억 원 규모의 협력으로 제테마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필리핀 내 독점적 유통권을 부여하는 우선적 협상 품목을 대폭 늘렸다. 이달 중 완료 예정인 필리핀 내 필러 제품 허가 시점에 맞춰 특신과 스킨부스터를 동시 투입함으로써, 필리핀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전반을 공략한다.

제테마 측은 "필리핀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K에스테틱을 알려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K-헤어케어 선보인다... 케라시스 美 진출

**애경산업, 온·오프라인 월마트 입점 글로벌 다변화 전략으로 카테고리 확장**

애경산업은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가 지난 2일 미국 최대 유통 매장 '월마트'에 입점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35개 지역에 위치한 월마트 390여 곳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선보여지게 됐다.

애경산업은 '케라시스 프로폴리스 헤어본딩' 3종을 출시한다. 이 제품군은 탈색, 펌, 고데기 사용 등 열로 인해 손상된 푸석하고 건조한 모발을 관리해 준다. 손상 모발 전문 기능과 향을 중요시하는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우선 '프로리페어 샴푸'는 풍성한 거



'케라시스 프로폴리스 헤어본딩' /애경산업

품으로 세정력을 구현하면서 밀착감 있는 제형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 '프로리페어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는 벌어진 큐티클 틈 사이에 작용해 모발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 준다. '프로리페어 리브인 트리트먼트 스프레이'는 미세한

앰플 입자를 처방한 제품으로 행금 없이 끈적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애경산업은 올해 들어 미국 월마트에서 퍼스널센트 바디케어 브랜드 '탑센트'와 토털 바디케어 브랜드 '사워메이트'도 공개했다. 케라시스를 추가로 내놓으며 K뷰티 카테고리를 확장해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월마트 입점을 시작으로 미국 내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바디케어에 이은 헤어케어의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램시마, 亞 주요국 점유율 1위

공급 안정성 앞세워 낙찰률 높여

셀트리온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직판 체계를 발판 삼아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처방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견조한 처방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표 제품인 '램시마(사진)'는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램시마는 싱가포르 93%, 홍콩 77%, 태국 73%, 말레이시아 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셀트리온 현지 법인은 입찰 중심인 아시아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을 앞세워 낙찰 성공율을 확대하고, 입찰 수주 이후에도 착실히 납기에 맞춰 계약 물량

을 인도하면 서 신뢰를 쌓아왔다.

또다른 자 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유프라이마'도 램시마의 성

과를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유프라이마가 오리지널 제품을 제치고 점유율 2위 자리에 오르는 등 처방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셀트리온 싱가포르 법인은 유프라이마 40mg에 이어 20mg 용량을 추가로 출시해 올해 예정된 아달리무맙 입찰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대웅제약, UDCA '코로나 후유증' 개선 연구

감염 6개월내 증상 개선 신호 보여

대웅제약은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르소데옥시콜산)가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중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증상 개선 신호를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에서 UDCA의 치료 가능성을 임상 현장에서 살펴본 국내 연구다.

해당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UDCA 투여군의 증상 개선 비율은 81.6%로, 위약군 57.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단순 비율로 비교하면, 위약군 대비 약 43%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감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환자군에서는 이러한 개선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에서 치료 시점에 따른 접근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감염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의 환자군에서 약물 개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연구진은 추가적인 면역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군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지표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변화는 감염 후 2~6개월 이내 환자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UDCA의 작용 기전과 최적 치료 타이밍을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는 심화 분석과 후속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롯데바이오로직스 美 '디캣 위크' 참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3~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 비즈니스 행사인 '디캣 위크(DCAT Week) 2026'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디캣 위크는 매년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교류 행사로 글로벌 제약사와 CDMO(위탁개발·생산기업) 등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디캣 위크가 열리는 롯데뉴욕팰리스(Lotte New York Palace) 호텔 내에 별도의 미팅룸을 운영하고,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CDMO 사업 협력의 기회를 적극 모색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 메주, 초격차 기술 앞세워 코스닥 출격

단일 장비로 다중 생체 신호 측정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메주가 단일 장비로 다수의 생체 신호를 잡는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코스닥 시장에 출격한다. 메주는 2025년 6월 기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이번 상장으로 연간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입원 환자 모니터링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다.

9일 메주는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한 향후 성장 전략과 미래 계획을 발표했다.

메주가 개발한 '하이카디'는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의료기기다. 메주는 생체신호 측정·처리·분석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설계, 생산 등도 내부에서 직접 운영한다.

메주 코스닥 상장 시점은 이달 26일로 예정됐다. 이번 상장을 통해 신주 134만5000주를 공모한다. 1주당 희망 공모가는 1만6700원~2만16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225억원~291억원 수준이다.

메주는 공모 자금을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한 유통망 구축, 현지 영업·마케팅 등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www.news1s.com

공감언론  
**뉴스1스**

## 뉴스1스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1스와 손을 잡고 뉴스1스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1스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 뉴스1스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 뉴스1스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1스!

시장독점에 대해 설립된 뉴스1스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2026년 쉬어로즈 컨퍼런스' 성료**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에서 '2026년 신한 쉬어로즈(SHeroe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신한 쉬어로즈는 여성 리더를 넘어 신화를 이끄는 인재"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



**현대건설, 주거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만든다**  
현대건설은 지난 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주거 기반 AI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오른쪽)과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환 원장이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JW중외제약, 대장정결제 '제이클' 활용방안 발표**  
JW중외제약은 지난 8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47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장정결제 '제이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이날 '제이클 정' 임상3상 결과와 대장내시경 검사 전처치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JW중외제약



**맥도날드-당근마켓, '공식 감튀모임' 마무리**  
한국맥도날드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과 손잡고 지난 6일 진행된 '공식 감튀모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모임은 당근 앱을 통해 선정된 50명의 '감튀단'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에게는 특별 제작된 티셔츠와 명예 감튀단 인증서 등 한정판 굿즈가 증정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국맥도날드



**한샘, 모자가정 지원 봉사활동... '응원 키트' 전달**  
한샘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직원들은 자사 리빙 용품들로 구성된 '자립 응원 키트'를 제작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키트에는 새 출발을 앞둔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응원 편지도 동봉했다. /한샘

## 롯데중앙연구소, 중소 식품업체 교육 확대

**LFSA 신청 접수... 안전관리 초점 원산지 표시·중처법 대응 등 주제**

롯데중앙연구소가 중소 식품업체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6 LOTTE Food Safety Academy(LFSA)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했다.

LFSA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가 2010년부터 17년째 진행 중인 식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는 식품사 최초로 롯데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모든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실시하고 있다. 총 4200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식품업계 ESG 실천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2026년 LFSA는 ▲원산지 표시 실무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공장 만들기 ▲식품공전의 이해 및 적용 ▲식품법령 파헤치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편) ▲올바른 식품표시의

과목명	교육일	교육시간
원산지 표시 실무	4/28(목)	14:00-17:00(3)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품공장 만들기	6/11(목)	14:00-16:00(2)
식품공전의 이해 및 적용	7/19(수)	14:00-16:00(4)
식품법령 파헤치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편)	8/26(수)	14:00-17:00(3)
올바른 식품표시의 이해	10/22(수)	14:00-17:00(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대응(중대사건사례 편)	10/29(목)	14:00-16:00(2)

롯데중앙연구소가 '2026 LOTTE Food Safety Academy(LFSA)'를 진행한다.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무 대응(중대사건사례 편)의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형태로 운영된다. 롯데중앙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과정에는 수강생 니즈를 토대로 4건의 신규 주제가 추가됐다.

신청은 상생누리 또는 롯데중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협력사는 롯데중앙연구소 식품안전관리통합시스템(FSM)에서 접수할 수 있다.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협력을 비롯한 국내 많은 중소 식품업체의 품질인력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업계 식품안전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도 수강생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롯데중앙연구소는 1983년 설립된 롯데그룹의 종합 식품 연구소다.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GRS 등 롯데 식품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기초·바이오 연구, 패키징 개발, 식품 및 상품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 유비케어, 사명변경 검토

'메디컬 OS' 기업 전환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가 인공지능(AI) 기반 '메디컬 OS'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GC메디아(GC MediAI)'로의 사명 변경을 검토한다.

국내 EMR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비케어는 9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사명 변경 안건을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새 사명 'GC메디아(GC MediAI)'는 Medical과 AI의 결합을 통해 의료 전문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의료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비케어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기존 EMR 중심의 사업 구조를 AI와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Medical OS'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제약사, 보험·금융, 헬스케어 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를 연결하는 의료 데이터 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을 확대한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K-뷰티·웰니스 인디 브랜드 육성

'뉴 뷰티 이노베이션 챌린지' 접수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4월 5일까지 '뉴 뷰티 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뉴 뷰티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뷰티·웰니스 인디 브랜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참신한 브랜드와 기술에 조기 지원해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분야는 ▲뷰티 브랜드(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등) ▲웰니스 브랜드(이너뷰티, 헬스케어) ▲뷰



티 디바이스 브랜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초기 스타트업에 위한 '루키 리그' 제도도 강화한다. 설립 2년 이내의 초기 브랜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 높은 초기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브랜드 전략, 제

품 개발, 제조 및 생산, 유통 채널 등 전사 역량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기술 기반 브랜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TIP S 추천 기회도 검토된다.

실제로 지난해 선발 기업들이 실제 투자 및 육성 단계로 진입하며 프로그램 실효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콘스탄트(리필드)'와 '프루트폴(팁도우)'을 최종 선발해 투자 후 육성을 진행 중이다.

세부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모레퍼시픽 벤처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메인비즈협회,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참여기업·인턴희망 청년 모집

메인비즈협회가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젝트형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9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메인비즈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기회를 제공해 혁신산업 분야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단순 체험형 인턴십이 아닌

기업의 실제 현안을 기반으로 한 팀 단위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청년들은 8주간 헌업 과제를 수행하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메인비즈협회는 ▲사전 직무교육 ▲청년수당 및 탐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대상 기업지원금 지원 ▲성과발표회 및 우수사례 공모전 운영 ▲취업 연계 및 진로상담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실무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과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언론보도 및 대외 홍보를 통해 사업 성과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에게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기업에는 준비된 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CJ올리브영, 오픈소스 관리체계 국제 인증

'ISO/IEC 5230:2020' 획득

CJ올리브영이 국내 뷰티·헬스 업계 최초로 오픈소스 국제 표준 'ISO/IEC 5230:2020'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IEC 5230:2020' 인증은 기업

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체계와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올리브영의 오픈소스 관리 체계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보안성과 투명성을 입증했다.

올리브영은 2023년 오픈소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수준으로 지

속 강화해 왔다. 오픈소스 검증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 '오픈소스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해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자체적인 오픈소스 관리 규정과 시스템 개발 시 오픈소스 검증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증과 보안 취약점 점검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청하 기자

유진그룹

## '유지너스' 1기 모집

유진그룹이 대학생 서포터즈 '유지너스' 1기를 모집한다.

9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유지너스'는 건자재·유통, 금융, 미디어·콘텐츠 등 유진그룹의 다양한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콘텐츠로 풀어내는 크리에이터 활동이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서울 및 경기도권 활동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20일 합격자 발표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인사

- ◆텔레픽스 △최고재무책임자 김도균
- ◆중앙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신상원
- ◆매일일보 △국장석 정책사회담당 에디터 이창희
- ◆더트래커 △편집국장 문지현

부음

- ▲정상식씨 별세, 정원익(JTV전주방송 기자·전북기자협회장)씨 부친상 = 9일 0시 44분, 김제장례식장, 발인 11일. 063-548-4700
- ▲박영기씨 별세, 박길병(우진플라임 이사)·미진·민영씨 부친상, 추모갑(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박성락(명성공업사무)씨 장인상 = 9일, 진주시민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11일. 055-762-4444
- ▲윤소연씨 별세, 박인진·중진·광호·해순·효순 모친상, 이강원·이승훈 장모상, 신미영·박성희·윤진희 시모상, 박희원(CBS 기자)씨 조모상 = 8일 대전 유성선병원장례식장, 발인 11일. 042-825-9494
- ▲김경자씨 별세, 인대훈(한국애브비스 펠서티·안과 사업부 전무) 모친상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1일. 02-3410-3151

#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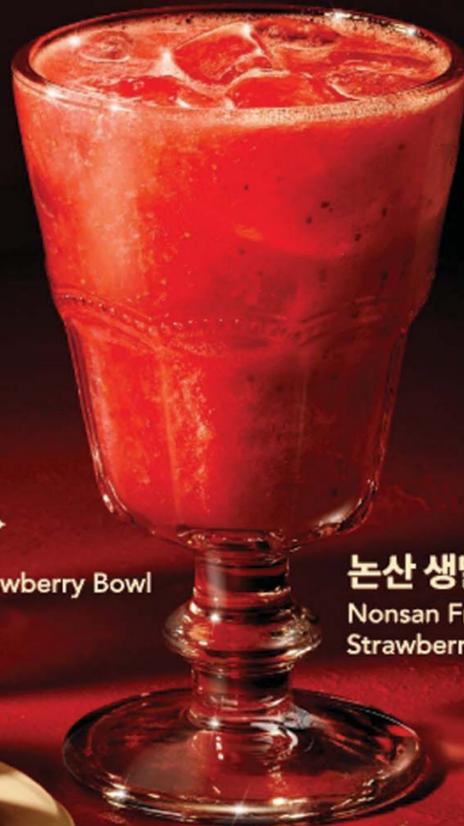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sup>★</sup>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sup>★</sup>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 봄이 왔을 때 봄을 먹자



연운열의  
푸드톡

2월 말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 냉이가 먼저 고개를 든다. 아직 바람이 찬데 냉이는 이미 나와 있다. 대담한 녀석이다. 냉이의 향이 가장 진한 시간은 딱 3주다. 3월 초에서 3월 말. 이 때가 지나면 냉이는 꽃을 피우고, 뿌리의 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꽃 핀 냉이는 그냥 잡초에 불과하다.

3월 중순, 냉이가 절정에 달할 무렵 썩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 썩은 냉이보다 호탕하다. 어디서든 자란다. 아스팔트 틈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어린 썩의 계절 역시 4월 초가 한계다. 그 이후 썩은 키가 커지고, 줄기가 굵어지며, 쓴맛이 너무 강해져서 입에 넣기 불편해진다. 4월에는 두릅이 나오고, 그 뒤를 취나물이 따른다.

이렇게 봄나물의 릴레이는 마치 누군가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밀하게 짜여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마트에 가보면 12월에도 냉이가 있다. 7월에도 취나물이 있다. 연중 내내 두릅이 진열대를 지킨다. 냉동이거

나, 수입산이거나, 하우스 재배 심지어 스마트팜에서 재배한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재배 기술의 발전이요, 유통의 혁명이다. 그러나 12월의 냉이와 3월의 냉이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냉이 향의 핵심 성분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자연광과 일교차 속에서 극대화된다. 노지에서 겨울 추위를 버티며 올라온 냉이와 온도 조절된 하우스 안에서 자란 냉이의 향 성분 차이는 연구에 따라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난다. 소비자가 “요즘 냉이는 맛이 없다”고 하는 건 미각의 쇠퇴가 아니다. 재배 환경이 바뀌었으니 냉이 맛이 없어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마트는 당신에게 봄나물을 1년 내내 제공하면서 친절하게 웃는다. 그 친절함 뒤에서 봄나물의 진짜 맛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

봄나물을 망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식당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호텔 주방에서도 봄나물은 종종 비극적으로 다루어진다. 가장 흔한 실수 세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미리 손질한다. 냉이를 전날 다듬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순간, 향의 절반을 이미 포기한 것이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세포가 파괴될 때 효소 반응으로 생성된

다. 즉, 칼을 대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간다. 손질 후 시간이 지날수록 향은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조리 직전에 손질하라. 이것 하나만 지켜도 냉이 요리의 수준이 달라진다.

둘째, 오래 끓인다. 썩국을 처음부터 썩을 넣고 끓이는 사람이 있다. 썩의 염색소와 향 성분은 80℃ 이상 장시간 가열하면 급격히 파괴된다. 국이 탁해지고 쓴맛만 남는다. 썩은 불 끄기 30초 전에 넣어야 한다. 남아 있는 잔열로 익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양념을 많이 한다. 썩과 냉이에 참기름, 마늘, 깨소금을 한꺼번에 퍼붓는 순간 봄나물은 ‘나물 무침’이 아니라 ‘양념 무침’이 되어 버린다. 봄나물의 생명은 씹살함과 독특한 향이다. 양념은 나물을 도와주는 조연이 되어야지 나물 본연의 풍미를 덮어서 안 된다. 좋은 봄나물일수록 양념을 줄여야 한다. 냉이무침에 소금 한 꼬집과 참기름과 들기름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다.

봄나물은 타이밍의 식재료다. 시기가 너무 이르르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너무 늦으면 이미 역제쳐 버린다. 딱 그 사이에 있을 때만 진짜 봄나물의 풍미를 나타낸다.

/푸드칼럼니스트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0일 (음 1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자식이 효도하니 서운했던 감정이 풀립니다. 60년생 동업자와 결별합니다. 72년생 안 풀리던 일이 풀리며 여유가 생깁니다. 84년생 싸웠던 친구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49년생 여행은 좋으나 북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61년생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 보입니다. 73년생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보여주세요. 85년생 매사 동료와 함께 의논하세요.



50년생 노력한 만큼 큰 재물이 따르게 됩니다. 62년생 중요한 서류를 잘 챙기세요. 74년생 가정의 평온을 위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더 큰 대를 위해 과감한 이별이 필요합니다.



51년생 동쪽이 길한 방향이니 움직여야 합니다. 63년생 예술계통 종사자는 길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75년생 헛물켜지 말고 현실을 잘 살피세요. 87년생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세요.



52년생 나이 어린 쥐띠를 조심하세요. 64년생 혼자 꾸리기 보다는 동업을 하세요. 76년생 서두르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신중히 움직이세요. 88년생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53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들도 싫어합니다. 65년생 집 밖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77년생 갑 쓰고 좋은 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89년생 새로운 인연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54년생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66년생 시험 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7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90년생 노력 없는 요행수를 바라는 안 됩니다.



55년생 진로문제 같듯이 있습니다. 67년생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79년생 독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91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56년생 문서와 관련된 법적문제는 실속이 없습니다. 68년생 허황된 재물에 투자하지 마세요. 80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2년생 남쪽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57년생 가족과 도모하는 일은 만사 길하니 자신 있게 추진해보세요. 69년생 문서관계를 각별히 조심하세요. 81년생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93년생 여행을 떠나면 재물, 인간관계 모두 좋아집니다.



58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년생 주색잡기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리며 조심하세요. 82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94년생 유행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59년생 돈이 술술 새어나갈 수 있으니 지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71년생 집안 문답속을 철저히 하세요. 83년생 주변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95년생 애인과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미국 지수 ETF는 초저보수 경쟁, 코스피 ETF는?



허정윤  
(자본시장부)

상장지수펀드(ETF)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일수록 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 결국 투자자들이 비교하게 되는 것은 비용이다. 그래서 글로벌 ETF 시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내에 상장된 S&P500 ETF의 총보수는 0.0047~0.0068% 수준까지 내려왔다. 운용사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보수를 잇따라 낮추면서 사실상 ‘초저보수’ 체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시장의 풍경은 조금 다르다. 코스피200ETF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인 삼성자산

운용의 ‘KODEX 200’ 총보수는 0.15% 수준이다. 반면 한국투자자산운용 ‘ACE 200’과 KB자산운용 ‘RISE 200’은 약 0.017% 수준으로 가장 낮고,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200’은 약 0.05% 수준이다. 동일한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임에도 운용사별 보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 만큼 ETF 간 성과 격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결국 투자자가 체감하는 차이는 비용으로 귀결된다.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의 복리 효과가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격차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해외와 국내 시장의 온도 차이이다. 해외 지수 ETF에서는 초저보수 경쟁을 벌이면서 정작 국내 지수 ETF에서는 경쟁이 미지근한 모습은 투자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 ETF 시장은 이미 400조원 규모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개별 종목 대신 ETF를 통해 시장에 투자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ETF는 이제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대표 지수 ETF의 보수 구조에 대한 논의도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 이어질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비용 부담이 합리적으로 낮아질수록 장기 투자 매력은 높아지고, 이는 ETF 시장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진 지금, 비용 구조에 대한 고민은 특정 운용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다. 투자자와 운용사, 그리고 자본시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zelkova@metroseoul.co.kr



# 김상희의四季

## 신체 오복

오복(五福)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書經)’의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교적 사고의 뿌리에 기반한 것이지만 신체 오복은 그야말로 건강한 인생에 있어 건강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기본을 다룬 것이다. 서경에서 언급한 오복 중에도 두 가지가 장수와 건강에 관한 것이니, 유교적 가치에서도 사람답게 잘 살고 군자 지향적인 삶에서도 건강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신체 오복은 치아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되며,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것과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말한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틀린 얘기가 없다.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신체의 다섯 가지 복은 전인적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건강의 기능인 것이다. 결국 잘 먹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출하는 것이 요점이며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하고 기능이 떨어진다면 건강의 적신호이자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홍범편에서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그리고 고종명(考終命)인데, 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부는 재물이 풍족한 것, 강녕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복된 삶의 기준으로서 실로 그 어느 것도 빼어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도 하다. 특히 자다가 잠자듯이 죽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바람이 아닐까 싶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복중에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어떤 복을 지어야 고종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五行에서 인수와 정관, 정재가 있으면 평탄한 삶을 유지한다. 평균 이상의 삶을 살며 풍파도 정도가 심하지 않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7	1	9		5
		1				4		
9								
6				8	9	2	3	
	7	9	5	3				4
								9
		5				6		
3	6	9	2	4				5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	△	△	6	9	△	△
△	△	9	△	△	△	9	6	8
6	△	△	9	9	8	△	△	△
△	8	△	9	△	9	6	△	△
9	6	9	△	△	△	△	8	△
△	△	△	6	8	△	△	△	9
△	△	8	△	9	△	△	9	6
△	△	△	8	6	9	△	△	9
9	9	6	△	△	△	8	△	△

△	△	9	△	9	△	8	6	△	△
6	△	△	9	△	△	△	8	9	9
8	△	9	△	6	△	△	△	△	△
△	△	△	8	9	△	9	△	6	△
△	6	8	△	△	9	9	△	△	△
9	9	△	△	△	6	△	△	△	8
9	8	6	△	△	△	△	9	△	△
△	9	△	△	9	△	8	6	△	△
△	△	△	6	8	9	△	△	△	9

# AI 맞춤형 인재 양성 나선다... 교육부, 'AI 중점학교' 운영

교육부, 1141개교에 385억 지원  
AI 수업 시간 최대 2배로 확대  
우수 수업 사례 교육청과 공유

〈교육부 선정 지역별 '인공지능 중점학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78	19	21	36	13	6	7	21	98	15	22	53	51	14	44	29	3	530
중	46	4	32	37	7	7	4	10	46	4	5	33	15	10	15	4	-	279
고	55	17	7	34	7	11	5	11	56	7	11	27	13	10	24	16	8	319
특수	3	4	-	-	-	-	-	-	-	-	2	-	2	-	2	-	-	13

/교육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인공지능 관련 수업 확대와 교과 융합 교육, AI 윤리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99-1)'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2025년 11월10일)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정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

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내 인공지능 관련 교과 수업 확대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교과와 연계한 융합 교육과정 운영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강화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학교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수업 시간도 확대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며 고등학교는 매 학기 인공지능 관련 과목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자체 선정한 1141개교다. 선정 학교는 2026년 3월부터 3년간 운영되며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 학생 동아리와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학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금 총 3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과 운영 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달라지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

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확대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우수 수업 사례와 운영 성과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인공지능 교육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윤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교육계 소통 돕는 '행정체제통합지원단' 출범

교육부, 행정 개편 실행방안 마련  
통합지역 교육지원 특례 검토 추진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설치의 '교육행정체제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령 제292호)'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

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광역시와 도가 통합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청의 기구·정원·인사와 통합 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통합 지역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특례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연구와 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 추진돼 지역교육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교육계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행정체제 통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어린이집 노후 CCTV 교체하세요"

설치비·유지관리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후 폐쇄회로(CC)TV 교체 지원에 나선다. 시는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어린이집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



놀고 있는 아이 모습.

/유투이미지

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 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 파주시-군부대, 협의 동의율 '역대 최고'

행정위탁 합의각서 체결

파주시가 군부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 이끌어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급 규모 행정위탁 확정...건축 인허가 속도감 높여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km<sup>2</sup>)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km<sup>2</sup>)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을 응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헤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허가 준 작전성 검토 '동의' 비율 역대 최고치(94%) 기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준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1 | 해질 / 18:34

3월

**10일** (화)

음력 : 1월 22일

수도권 날씨

**-7 ~ -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4/8

동두천 -3/10

가평 -4/9

양평 -2/10

용인 -1/8

평택 -2/9

수원 -1/8

인천 -1/7

서울 -1/9

파주 -5/9

백령도 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르웨이 美대사관 폭발...“테러 가능성 조사 중”  
▲트럼프, 방중 때 지미 라이 석방 요구할 듯... 대중 제재 완화 거론

▲2월 중국 소비자물가 1.3% ↑ 생산자물가 0.9% ↓... “CPI 상승폭 확대”  
▲日, 말레이에 희토류 채굴 지원... 中의존 탈피 목적

▲“동료라더니 이란 타격엔 침묵”...브릭스 분열에 ‘서방 대항마’ 꿈 흔들  
▲콜롬비아 총선 개시... 페트로 대통령 “투명성·공정선거” 강조



대형마트  
미국·베트남서  
할로 찾았다  
니



Life

제약바이오  
특신·스킨부스터 등  
에스텍틱 공략  
L2



# 게임 세계관 체험에 OST 공연까지... 오락 넘어 문화로 확장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넥슨

게임 기업 넥슨이 자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문화 프로젝트와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게임을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공연과 전시, 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확장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장기간 축적한 게임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속 캐릭터와 세계관, 음악 등 콘텐츠 자산을 공연과 전시,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하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게임 콘텐츠가 문화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넥슨의 장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젝트다. 넥슨은 최근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협업해 메이플스토리 세계관을 테마파크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지역 콘셉트를 활용해 공간을 꾸미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게임 속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과 이벤트, 한정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이용자들이 게임 세계를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업 프로젝트는 게임 IP가 현실 공간으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게임 속 세계관을 테마파크 공간에 구현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험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게임 산업이 가진 콘텐츠 자산을 관광과 문화 체험 콘텐츠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오락 넘어 다양한 문화영역으로 확장 게임 IP 활용한 문화 프로젝트 추진

### 메이플스토리 세계관 테마파크 구현 게임 이용자에 콘텐츠 체험 경험

#### ◆게임 음악, 공연 콘텐츠로 재탄생

넥슨은 게임 음악을 공연 콘텐츠로 확장하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이플스토리 OST 콘서트다. 게임 속 배경음악을 오케스트라 공연 형태로 재해석해 선보이며 게임 음악이 공연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 이후 20년 넘게 서비스되며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축적해왔다. 지역과 캐릭터, 상황에 따라 제작된 배경음악은 이용자들에게 강한 기억을 남기는 요소다. 넥슨은 이러한 음악 자산을 공연 콘텐츠로 확장해 게임 음악이 독립적인 문화 콘텐츠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게임 음악 공연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도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형 게임 IP를 활용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게임 음악이 클래식 공연 콘텐츠로 재해석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게임 음악 공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넥슨의 시도는 게임 산업의 문화적 확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넥슨이 오는 14일부터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협업한 메이플스토리 테마파크를 운영한다.



지난해 열린 메이플스토리 겨울 쇼케이스 현장.

/넥슨

### 게임 OST로 오케스트라 공연 열어 클래식 공연 재해석 가능성 제시

### 한국 전통공예 결합한 협업·전시 등 게임 콘텐츠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게임 IP 전시와 문화 협업 확대

넥슨은 게임 IP를 활용한 전시와 문화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게임 캐릭터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며 게임 아트와 캐릭터 디자인을 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시도다.

최근에는 게임 세계관을 한국 전통 공예와 결합한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를 전통 공예 작품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며 게임 콘텐츠와 전통 문화가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게임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게임 콘텐츠 경험의 확장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연과 전시, 체험형 콘텐츠 등을 통해 게임 세계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넥슨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게임 IP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게임 속 세계관과 캐릭터,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자산을 현실 공간과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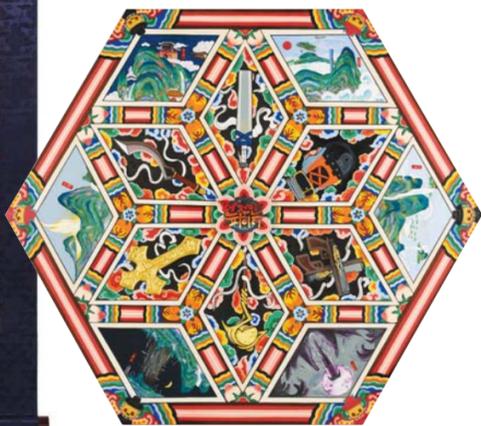
특히 장기간 서비스된 게임 IP는 강력한 팬층과 콘텐츠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로 확장하기에 적합하다. 메이플스토리처럼 오랜 기간 사랑받은 게임은 음악과 캐릭터,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 요소를 보유하고 있어 공연과 전시, 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넥슨은 앞으로도 게임 IP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게임 산업의 문화적 가능성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게임을 하나의 종합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고 이용자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IP가 가진 세계관과 캐릭터,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자산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게임과 한국 전통공예를 결합한 협업 프로젝트. 왼쪽부터 사계도원경전도와 육각마도록. /국가유산청

## 메트로 한줄뉴스



▲문체부, 문학상주작가 100명 공모... 7달 지원  
▲피카소·이중섭 전국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동행' 추진 /사진 뉴스스

▲판굿·사자놀이... '대만 등불축제'서 한국의 전통연희 펼친다  
▲실날같은 희망 남은 류지현호, '다크호스' 후주와 최종전 격돌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운 "4년 뒤, 더 잘 타는 선수가 목표"  
▲'교체 출전' 메츠 배지환, MLB 시범경기 첫 타점 신고